

마음 하나하나 내 주는 것도 모두 방생이예요

25면에서 계속

직감이라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쓰러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하러든 뭐 약이 조금 있는데 그걸 잡썬 보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 놓고는, 그 어떡합니까. 누가 준 미숫가루를 몰에다 개 가지고는 그걸 이만하게 환을 지었죠. 그 미숫가루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환을 한 몇 개 지어 가지고선 “이제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에 하나 먹고...” 하하하, 그랬지 어떡합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는 나도 모르는 거, 어쩍니까?

그때 그렇게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다린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때를 기다려야 어떻게 그 집을 좀 도와주고 가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 약을 먹고 얼마 안 있더니 만 아주 생생하게 살아난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나니까 그 집에서 그냥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기에 “주시려면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쌀 한 섬만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쌀 한 섬을 어떻게 갖고 가시려고 하느냐 그래요. 난 가지고 갈 게 없노라고, 저기 아무 데로 가다가 보면 아무개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제가 빚을 갚는데 한 섬을 갚노라고, 그러니 갖다가 갖다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 또 나는 휘적휘적 간 거죠.

그 집에 쌀을 갚다 주면서 어저께 묵어먹고 간 사람이 빚을 갚노라고 가져왔다고 그래 달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아이고, 빚은 무슨 빚이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면서 그분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만에 찾아와서 만나도 봤습니다. 그러하고 그 예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더러더러 그때는 참 많았다고 보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쁜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남에게 무엇이든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나에게 해(害)가 돌아오더라도 남에게 준다는 거, 마음 하나를 내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떨어져서 가난한 집을 도와주는 게 아니예요. 좀 여유 있는 집에서 여유가 없는 집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방생이예요. 일부러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양으로 ‘내가 장하게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참나에 그 생각이 있고 참나에 그런 일이 있고 그랬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 되게끔 돼 있는 것은, 내 몸 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전부 달구멍을 통해서 내가 한생각 내면 그냥 가서 마리마리 다 일들을 하거든요. 신장도 될 수 있고 호흡신도 될 수 있고 화신도 될 수 있고 법신도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리마리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진 참나의 살림살이 어떤 한계가 있는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살라. 맡겨 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날 거 같아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한군데다 맡겨라. 한군데다 맡고 맡겨라.’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겨라’ 이렇게 했죠. 무조건 그렇게 맡기게 되면 어디로 통과가 되느냐 하면 벌써 시각부터 통과가 되고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 발로가 돼요. 그래 감각이 아주 영리하게 되는데, 이 안의 심안부터 밝혀져요. 그런데 심안이 밝혀졌다고 해서 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자꾸 밝아지고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쪼끔쪼끔 자꾸자꾸 이끌려 가는 거기에 의해서 다섯 가지가 자꾸 발로가 됨으로써 그때는 자연으로 들어가고 지각으로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오신통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쥐고 그대로 조금조금이라도 체험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는데, 발견을 해서 되는 것만이 ‘이것이 내 공부다, 잘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안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놓치지 않고 이걸 모르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를 구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줄 모르면

어떻게 현실에서 구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양면을 다 알아야 합니다. 안되는 것은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안되는 거고 되는 것도 선업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다 한데 합쳐져서 녹아 들어가서 자기가 그것을 자유재할 수 있는 지혜와 심안이 밝혀져야 하고 오신통이 다 밝혀져서 그 오신통마저도 이롭조차도 없이 자유재권을 가져야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자꾸 나아 돼요. 나아 하는 게 아예가 있는 것 같지는 다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감사하게 놔주세요.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해 하지 따 데다가 해선 안 되죠. 그게 자기 나기 이전 조상이니까요. 자기 아버지니까요. 자기가 현재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들이라면 그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체가 없고 능력만 있기

한 식구로 살았습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한 철 사는 겁니다. 한 철. 우리 스님네들이 한 철 나가서 살고 한 철 또 들어오고 이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니다. 이게 한 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철 집에 모여서 살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한 철 삽니다. 그러니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통틀어 본다면 네 부모 내 부모, 내 지식 내 자식이 따로 없어요.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본다면 사생이 따로 없단 얘기에요. 너무 모습을 바꿔 가면 진화해서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니까요. 그러니 ‘내가 위대하고 잘나고 야, 참 조진 좋고, 이렇게 사니까 이만하면 만족해.’ 이러지마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한 철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한 철이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인데 이것을 한 철이라고 보죠. 그러니 한 철이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여러분이 전부 나그네의 길이에요. 내 남편 내 자식에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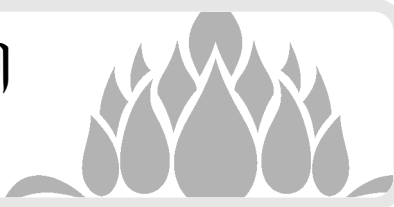
아니, 가난한 것도 그렇고 전부 보면 모두가 자기 탓이예요. 그것도 억지로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 놓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다섯 가지가 계발이 돼서 오신통을 그대로 여여하게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고 그때 다시 체험을 하면서 또 보임을 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주 법계를 다 통할 수 있어요. 우주 법계에 다, 우리네 몸통이에 법망이 있고 법계가 있고 그렇듯이 그냥 전부 통해요. 즉 말하자면 그 통신망을 넘나든다는 얘기고요. 천체에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신이 잘 되니까 심안으로도 밝게 볼 수 있고 또 모습 없는 모습들이 천이, 신족, 타심, 속명 이런 것이 다 발로가 돼서 동시에 용도대로 한생각이 나면 그냥 그 즉시 행합니다. 그래서 참나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도리를 모르면, 살아서 열반을 못하면 죽어서도 열반이 아니예요. 몸통이가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러는 것이 살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도리를 모르면 그냥 영원히, 십억 년이 돼도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나중에 더 미해지고, 더하면 짐승의 몸을, 탈을 쓰고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완전무결한 뭐가 못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윤회에 끄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던 자유권을 가졌다는 거죠.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되고, 천상 인간이 되려면 천상 인간이 되고, 부처님 자리에 같이 하려면 하고, 탐대로 하는데 중생들을 돌봐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올 수도 있고, 어디고 나오고 들어감도 없이 나고 들어거든요. 천상에도 내가 있고 인간에도 내가 있고, 별례를 건지려면 별례 속에도 들어가야 하고 어느 거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이 될 줄 알아야 돌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백역화신으로서 나뉘어 있는 거고요. 나뉘는 것과 나뉘기 이전을 알아야 육십이전에 속하고 팔십중후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범문은 1989년 1월 8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 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무엇이든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때문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깨어 가지고 굴리는 능력만 있었어요. 그래서 심력이라고 해도 돼요. 원심력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마음내는 것은 자꾸 그 역할을 하도록 굴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몸을 움직여주고 이러는 것도 활용이구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놓는다, 감사하게 놓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돌아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물었지마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돌아 아님을 아느냐? 당신은 지금 사는 요 50%의 물질세계만 보니까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50%를 마저 알아야 죽어 가고 살아나고 하는 연결된 이 자체를, 유의 세계 무의 세계가 연결된 이 자체를 다 통틀어 봐야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돌아 아닌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집에서든 한 가정으로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한 식구라고 사는데요, 언제 적에

다방에 걸리면 가지 못하죠? 그렇듯이 유의 세계 무의 세계를 넘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쉬지도 못해서 자꾸 걸려 가지고 되는 노릇이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자손들과 남편과 아내, 형제와 모든 것은, 어떠한 일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인공밖에 해결 못한다. 주인공 운전자 다 끌고 다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맘대로 하랴.’ 하고 믿으면서 딱 놔 버린 말이에요. 그래야 발이 묶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내가 없으니까 발이 묶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서 육신을 잘 끌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잘못되는 것도 마음으로 지어저 잘못되거든요. 내가 꼭 저게 하고 싶어 가지고는 돈을 왕창, 돈 쪼끔쪼끔 탕 거 전부 들어 가지고 훌쩍 집어먹고선 죽겠네 살겠네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너그르게 볼 수 없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심안을 통해서 봤더라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건데, 그게 그렇게... 나는 어떤 때는 그래요.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1 사찰에서 전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자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후우로 가망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보현사신협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자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사업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누워하는 참선 + 와선체조

와臥禪선

중단전차크라(명치, 화병, 상기병) 단전 시원하게 ~ 뽕어 줌

호흡초월, 몸통아리 초월, 공(空)삼매 즉석 체험
머리에서 잡생각 망상이 개미떼 벌떼처럼 빠져나감
엄청난 오로라 전신에 꽉 찬 황홀경 누구나 체험
진짜 달콤한 감로질! 행복감 체험

피로회복 · 면역력증대 체험 100%
발 무릎 꼬리뼈에서 냉기, 병기, 나쁜 기운 빠져나감

스트레스해소 · 우울 · 불안 · 고민해소체험 100%

▶대상 : 누구나, 스님, 선생님, 교수님, 연구직, 예술가
템플스테이 운영자, 출가예정자, 참선, 위빠사나
고시생, 수험생, 유능한CEO, 사회지도자

☞ 아니베나사피 수영이 잘 안 되시는 분
☞ 심장박동, 생각, 마음 보기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
☞ 참선, 염불, 절, 명상수행의 진전이 없으신 분
☞ 목, 뒷골, 어깨, 명치, 단전이 저절로 풀리고, 뽕어 체험
☞ 꿈 많고, 자다깨다 반복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분
☞ 스트레스지수 면역력 클레스테롤 엔돌핀, 토파민, 세로토닌
검사해 보시면 100% 놀라운 확신

♣ 청견스님 직접 교육 수행지도 ♣
☎ 02)456-0035 (서울·부산·대구·광주법당)
www.법왕정사.kr (와선특강)
▶매주 화요일: 절교육, 2011년 1월부터 수행템플스테이 운영

권선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에서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 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복지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사·암에서 버려지는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 자체 수거와 후원금을 받습니다. 부디 고승복지원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 불자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수거품목 : 폐초, 파불,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 [후원금 예금주]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농협) 1124-01-138620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 주시면 택배업체를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복지지원단에서 지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227번지
전화 : ☎ 031)764-3511, 070-4246-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들이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사항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여 드립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大韓佛敎高僧聯合會 복지지원단
총무원장 대종사 광명 합장

후원단체 : 대한불교신인중, 국제불교조계종, 불교미술사회교육원, 해동불교강조계종, 대한민국미술연합, 자비실천운동본부, 융화불교교단, 천도불국사, 백제무예연구원, 불자기수회, 호국연예인예술단, 사천왕경호대, 서울불교방송, 한·중 불교문화원